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8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8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열띤 토론·뜨거운 봉사 땀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 현안 토론하는 ‘오월포럼’

“건강한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들부터 건강해야죠.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을 자신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모임의 취지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지역 30~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모임 오월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형석(노무현 전대통령 비서관)씨가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21일 출사표를 던졌다.

또 30여명의 회원들도 이날 전남대 운동장에 모여 대회 개막일까지 포기없는 완주를 위한 ‘성실 훈련’을 약속하며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매주 1회 주말모임을 갖고 있는 오월포럼은 토요일 설전에 앞서 가볍게 축구 한게임으로 몸을 푼다.

이들이 축구를 즐겨하게 된 것은 바로 이형석 고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문은 청와대 재직시절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각종 직능단체를 방문해 업무를 조율하고 국정방향에 대한 시민의 뜻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오월포럼을 접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서로의 사회적 지향점에 대해 뜻을 공감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30~40대 직장인들 주축

평소 조기축구회 등을 통해 운동을 해오던 이 고문은 결국 모임에도 ‘축구 한게임’을 도입, 열띤 토론 못지않은 축구 마니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이 고문은 이번 대회를 위해 축구 외에도 매일 전남대운동장을 돌며 몸 만들기에 한창이다. 그는 “스포츠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를 가져다 주며 혹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광주·전남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모임인 ‘오월포럼’(고문 이형석) 회원들이 21일 전남대 운동장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건강한 몸과 승부를 인정할 줄 아는 귀중한 정신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면서 “선조들은 조국을 지키기위해 처절하게 달려들며 독립을 외쳤고, 그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며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도 자발적인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김양원씨는 퇴근 후 30여분씩 달리면서 마라톤 대회를 대비하고 있다. 김 씨는 “선조들의 독

립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대회에 그간 참여하지 못하게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매년 빠지지않고 참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명 5km·10km 레이스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인 오월포럼은 이번 주까지 자신의 몸 컨디션을 점검한 후 5km와 10

km로 나눠 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들간 저녁 술자리는 삼가하기로 약속하고, 마라톤 초보자들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초빙해 달리기 방법을 배우는 등 세부적인 훈련계획까지 마련해 놓았다.

‘땀을 사랑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오월포럼 회원들이 이번 대회에서 땀을 흘린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아버지 고향서 氣받아 가고 싶다”

강진 온 ‘국민타자’ 이 승 업

“아버지의 고향에서 기를 받고 싶다.”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타자’ 이승엽이 21일 아버지의 고향 강진을 찾아 2010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20일 저녁 강진을 찾아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 이승엽은 21일 오전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KIA 잔류군과 함께 운동을 하며 몸을 풀었다.

강진은 아버지 이춘광씨의 고향, 강진베이스볼파크는 아버지 이 씨가 강진군과 함께 민간 투자자 유치에 나서 조성됐다.

어린시절 강진에서의 추억을 갖고 있는 이승엽은 지난 2003년 이후 7년만에 강진에 발걸음을 했다.

이승엽은 “그동안 고향을 찾으려는 부친의 말씀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찾지 못했다.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방문이 늦어졌다”며 “이곳에 야구장이 들어서 있어서 놀라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타율보다는 홈런에 비중이 있는 선수가기 때문에 홈런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100타점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고 올 시즌을 전망한 이승엽은 “정신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 곤살레스의 영입 등이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이제 현실 인만큼 후회 없는 시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로 요미우리와의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이승엽은 새 용병 곤살레스 영입 등으로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아시아 게임 출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승엽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국가대표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었는데 실력이 된다면 국가대표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언급해 앞으로 이승엽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1월 일본 홋카이도로 KIA와 만났던 이승엽은 한국 야구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승엽은 “한·일클럽챔피언십 당시 KIA가 정에 멤버들로 나섰다면 요미우리가 패배했을 것이다. KIA는 우승팀답게 훌륭한 팀이었다”면서 “일본에 진출한 김태균·이범호 선수가 나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 한국 야구가 일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승엽은 모처럼 찾은 강진에서 소중한 선물도 받았다. 다산 수련원에 머물고 있는 우백 이남수 화백이 이승엽 방문 소식을 듣고 한국의 기상을 담은 무궁화 그림을 그려 선물한 것이다.

이승엽은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무궁화의 기를 받아 올 시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진 출신의 이 화백은 무궁화 그림으로 1999년 일본의 대표적 미술대전인 전일전(全日展)에서 동양화 부문 대상을 받은 경력 이 있다.

/강진=김여울기자 wool@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타자’ 이승엽이 21일 아버지의 고향인 강진군을 찾아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배팅연습을 하고 있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IA 구톰슨 빈자리에 ‘로드리게스’

MLB출신 도미니카 용병

연봉 등 총 25만달러 계약

KIA 타이거즈의 ‘용병 마운드’가 완성됐다. KIA는 21일 도미니카 출신의 리카르도 안토니오 로드리게스(32·우투우타)와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0만달러 등 총 25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로드리게스의 가세로 2010시즌 KIA 마운드에는 ‘도미니카 형제’들이 출격하게 됐다.

도미니카 출신의 로페즈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확정지었던 KIA는 구톰슨과의 재

계약 불발로 비어있던 용병 자리에 역시 도미니카 용병 로드리게스를 영입해 마운드 전력을 완성했다.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와 텍사스에서 활약했던 로드리게스는 192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으면 올해는 도미니카 윈터리그 에스코이아도에서 활동했다.

구속은 140km 중후반으로 직구를 비롯해 싱커, 커브 등 다양한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변화구 구사능력과 노련한 경기 운

영능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을 보내며 거둔 성적은 10승15패 방어율 5.19로 최근에는 주로 선발로 활약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안 60승41패 1세이브 3.66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에 입국해 메디컬체크를 받았던 로드리게스는 곧바로 폼으로 출격해 한국무대 적응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진 3000, 12, 26, 30, 31, 02, 2000

100% 특가상품

(주)우동관광여행사

전화 : 062-383-9042

제주여행 이제 할인 받고 가자!!

10% 할인상품

20% 할인상품

30% 할인상품

40% 할인상품

50% 할인상품

60% 할인상품

70% 할인상품

80% 할인상품

90% 할인상품

100% 할인상품